

화사 · 김연우 · 보아...연말 무대에도 '퀸' 열풍 ing



대세 아이돌부터 명품 보컬리스트까지, 퀸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누적

대세 아이돌부터 명품 보컬리스트까지

관객수 98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수들 사이에서의 '퀸 열풍' 역시 지난해 연말까지 계속됐다.

SBS '가요대전'과 MBC '가요대제전'은 퀸의 명곡으로 꾸며진 스페셜 무대를 마련했고, 김연우, 정승환, 보아는 연말 콘서트에서 퀸의 명곡을 선곡한 커버 무대로 팬들과 더 특별한 교감을 나눴다.

'가요대전'에서는 워너비 김재환, 세븐틴 도겸, 갯세븐 JB, 워너 강승윤, NCT 도영이 퀸의 '돈 스탱 미 나우(Don't Stop Me Now)'를 함께 불렀다. 대세 아이돌 그룹에서 보컬 기대 이상의 퀄리티가 시청자들의 컷가를 사로잡았다. 다섯 사람이 보여준 색다른 록 보컬과 하모니가 '가요대전'을 더 빛냈다.

가요대제전을 통해서도 마미루

화사의 '위 윌 락 유(We will rock you)'와 노라조의 '하이 위즈 본 투 러브 유(I was born to love you)'를 만나볼 수 있었다. 밴드 사운드와 함께 화사의 고혹적인 보컬과 노라조의 강렬한 무대매너가 시선을 강탈했다. 특히 조빈은 형광색 의상과 콧수염 분장으로 보는 재미까지 선사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가수들의 연말 콘서트에서도 퀸의 명곡은 빠지지 않았다.

보이는 3년 4개월 만의 국내 단독 콘서트 중 퀸의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Love of my life)'를 가창했다. 특히 보이는 '보헤미안 랩소디' 관람평과 함께 "연인, 팬, 관객 분들을 모두 비취볼 수 있는 가사인 것 같다"며 선곡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에 팬들과 더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앞서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

에서 비주얼까지 프레디 머큐리로 변신한 모습을 예고했던 김연우는 연말 콘서트를 통해 퀸 메들리를 통해 명불허전의 역대급 무대를 펼쳤다. 정승환 역시 첫 연말 콘서트에서 '라이브에이드' 퀸 무대의 메장을 재연했다. 수년 전부터 퀸을 대상으로 꼽았던 디펍스 또한 연말 콘서트에서 퀸 메들리를 선보였다.

그 뿐만 아니라 로맨틱펀치는 '불후의 명곡' 왕중왕전에서 퀸의 노래를 불러 우승을 차지했고 보이스퍼와 아이반은 퀸 메들리 커버 영상을 공개했다. 네이처 또한 '뮤직뱅크'에서 '돈 스탱 미 나우'를 재해석했다. '나 혼자 산다' 전현무, 슈퍼맨이 돌아왔다 윌리엄과 벤들리, 개그콘서트의 광범 등 예능계도 프레디 머큐리 패러디에 동참했다.

'보헤미안 랩소디' 관객들에게, 특히 후배 가수들에게 큰 영감을 준 퀸의 음악은 이렇듯 다채로운 재해석 무대로 이어지며 더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골목식당' 피자집, 백종원 인내심 테스트



잡으며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했다

문제는 출연자들이다. 매 골목마다 기본도 갖추지 못해 백종원을 당황케 하고 시청자들의 뒷목을 잡게 하는 이들이 있는 것. 이들은 일명 '빌런'이라 불리기도 한다. 맛보다는 눈요기로 승부하겠다고 나선 이들부터 전혀 전문성 없이 무작정 요식업에 뛰어들어 백종원의 노하우만을 원하는 이들까지,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았다.

2일 방송된 '골목식당'에서 피자집 사장님

'골목식당' 피자집이 시청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골목식당'이 시작한 이래로 매 골목마다 시청자들을 화나게 하는 사장님들이 있어왔지만 피자집은 '역대급'이라는 말을 또 한번 경신했다.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죽어가는 골목을 살리고 이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담은 거리 심폐소생 프로젝트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요식업계 큰손인 백종원이 가게들을 점검하고 자신이 쌓아온 노하우로 솔루션을 제공,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실제로 백종원의 솔루션을 받은 많은 가게들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이 호황을 누리는 경우가 생겼고 기획의도대로 그 골목의 상권도 보다 활발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앞서 3대천왕을 통해 전국 곳곳에 있는 맛집과 명인들을 찾아 소개하고 '푸드트럭'을 통해 창업을 도운 그의 새로운 도전으로 주목 받았고, 화제성과 시청률을 모두

고르게 잡 사장님은 무성인 태도로 빈축을 샀다. 피자집 사장님은 시식단을 위한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은 물론 요리에 대한 기본도 갖추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시식단을 '공짜로 밥먹으러 온 사람들' 취급해 백종원, 조보아, 김성주 등 MC들을 경악케 했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문제의 가계부'이 등장하는 만큼 시청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이쯤되니 백종원의 정신 건강을 걱정하는 시청자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을 상대하고 설득하고 변화 시키고 자신의 노하우까지 주는 것이 백종원의 몫이기 때문.

현실적으로 '골목식당'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런 출연진이 필요한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골목식당'의 순간 최고 시청률을 만드는 것이 이런 사장님들이다. 이 때문에 제작진이 '답도 없는' 분노유발 식당을 일부러 찾아 출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식당X꽃청춘=커피 프렌즈' 나영석 장사예능 또 통할까



나영석 PD가 또 다시 '장사예능'에 도전한다

4월 첫 방송하는 tvN '커피 프렌즈'는 제목이나 유연석 최지우 등 출연진만 보면 드라마 같지만 예능이다

4월 첫 방송하는 tvN '커피 프렌즈'는 제목이나 유연석 최지우 등 출연진만 보면 드라마 같지만 예능이다

콘셉트는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왔던 '제주도에서 커피 차리기'다. 유연석과 손호준 그리고 최지우와 양세준이 제주도의 한 감귤 농장에서 커피를 운영하며

수익금을 전액 기부한다.

절친한 유연석과 손호준이 올해 해 동안 진행했던 동명의 기부 행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커피 프렌즈'는 직접 트래일러를 몰고 손수 준비한 음료를 나눠주며 원하는 만큼 커피값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기부를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미리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는 손호준이 직접 커피를 내리고 라떼아트까지 해낸다. 실제로 손호준은 '커피 프렌즈'를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유연석이 꿀을 직접 손질하고 먹음직스러운 토스트를 만들어낸다. 연출은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의 박희연 PD가 맡았지만 나 PD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때문

인지 이미 인연이 있는 출연자들이 대거 포진했다.

유연석 손호준과는 '꽃보다 청춘'으로 함께 했고 최지우와는 '꽃보다 할배 그리스편'에 등장한 바 있다.

'여행 예능'으로 대한민국 톱PD 지리에 오른 나PD는 최근 '윤식당' 시리즈를 통해 '장사 예능'으로도 재미를 보고 있다. 특히 '윤식당'에서 박서준이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자 이에 젊고 풋풋한 배우들을 대거 포진시킨 '커피 프렌즈'를 기획했다. 게다가 판매방식에 기부를 덧붙여 혼용함도 더했다.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윤식당'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신선함이 떨어지고 낯익은 스타일인 것은 사실이다. 이 낯익은 '윤남' 배우 두 명으로 커버할 수 있을까. '커피 프렌즈'의 성공 여부는 여기에 달려있다.

'아쿠아맨' 400만 돌파...연일 흥행기록



영화 '아쿠아맨'이 3일 오전 9시 40분 기준 영화관객장권 통합전신망 집계 결과 '아쿠아맨'이 누적관객수 400만 명을 넘어섰다.

19일 개봉 이후 12일 만에 300만 명 관객을 동원한데 이어 3일만에 100만 명 관객을 더해 400만 명 고지를 점령했다.

'아쿠아맨'은 일찌감치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225만명)을 넘어선 DC 확장 유니버스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고 '분노의 질주: 더 세븐'(324만 명)까지 넘어 연출을 맡은 제임스 완 감독의 국내 개봉작 중 최고 흥행작으로 올라섰다.

또한 DC 유니버스 명작으로 손꼽히는 다크 나이트(417만 명)까지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흥행을 지속하고 있어 곧 1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DC 유니버스 중 다크 나이트 라이즈 이후 두 번째 기록이다.

연일 관객들의 호평 속에 예매율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박스 오피스 기록 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아쿠아맨'은 땅의 아들이자 바다의 왕, 심해의 수호자인 슈퍼히어로 아쿠아맨의 지상 세계와 수중 세계를 오가기 위대한 여정과 탄생을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이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아틀란티스 7개 바다 왕국의 거대한 스케일과 다양한 심해 크리처가 등장하는 풍부하고 화려한 볼거리를 비주얼 환황경을 선사해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영웅 탄생의 신화적인 스토리와 가족애, 사랑, 희망과 감동이 고루 담긴 오락영화로서의 밝은 분위기 또한 온 가족이 볼만한 영화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했다.

최고의 히어로 캐릭터를 완성한 제임스 모모아의 쿨하고 시크한 매력과 좌충우돌을 안도하는 멤버 히드와 니콜 키드먼의 완벽한 미모는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컨저링' 유니버스를 비롯해 '분노의 질주: 더 세븐'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제임스 완 감독은 '아쿠아맨'을 통해 액션에 공포, 로맨스, 판타지까지 다채로운 함을 입혔다.

오늘의 운세 2019년 1월 4일 금요일 (음력 11월 29일)



▶**운세**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이 하늘에 닿아 조화를 이루니 대길 운.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라. 비, 르, ㄸ 성씨는 업무 외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낼이 좋겠다.



▶**운세** 유혹을 물리쳐야 할 때다. 내 분수를 지키고, 주어진 일에 전념해야만 모든 것이 길하다. 3, 7, 12월생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해서는 안 된다. 후회할 일이 생길 듯하니 구분해 사랑하라.



▶**운세** 남의 눈을 신경 쓰지 말고 순리대로 행하면 부정을 물리칠 수 있다. 나를 도울 사람은 어려울 때 같이 지낸 사람이니 속사정을 말하고 진실을 보이라. 사람을 속이는 것은 비겁한 행위다. 4, 6, 11월생 마음을 비우라.



▶**운세** 자존심을 한 번쯤 꺾는다고 해서 순해 보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당장은 견디기 힘들겠으나 지나고 나면 마음도 편하고 득도 있겠다. 내가 먹고, 남의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대접이 아니다. 5, 8, 12월생은 베풀라. 북, 동쪽에서 도움을 준다.



▶**운세** 당장 고전을 면하기 어렵지만, 재기의 빛이 보인다. 한탕을 하겠다는 생각만 버리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하는 일에 자신을 갖고 노력에 노력으로 추진하면 만사형통 하겠다. 2, 5, 11월생 애정적인 양보심만이 행복을 찾을 수.



▶**운세** 계획대로 순조로우나 어째가 무겁다. 더욱더 분발하면 칭송받겠다. 처자식 있는 몸이 늦게 삶을 변동한다는 것은 사회적 가정적 지탄 받는 일이니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처신하라. 서북쪽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운세** 현재는 의욕이 상실해 떠나고 싶은 생각뿐이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 최선을 다하라. 그, 지, ㅎ 성씨는 애정 면에서 이별 수가 따른다. 어떠한 문제에 당면해도 차분히 해결해 나가자.



▶**운세** 사후하루 살다 보니 건강에 신경 쓸 때도 없이 달랠았지만, 알아주는 이 하나도 없구나. 부부간 비밀은 보장받지 못한다. 마음이 변해 원망하게 되고, 이별할 운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대하라. 3, 7, 9월생은 자신을 억제할 것.



▶**운세** 현재는 침체 상태. 동업하거나 투기하면 신용 하락으로 어려워진다. 현상 유지에 만족하라. 형제간 동업을 피하라. 원망만 남는다. 1, 7, 11월생은 자금을 융통하는 데 힘겹겠다.



▶**운세** 자책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고난의 길은 내가 만드는 것. 생각하라 어려운 고비는 누구에게나 있으나 종류가 다를 뿐이다. 자신감을 품고, 용기를 잃지 말라. 지, ㄸ, ㅎ 성씨는 인내가 필요할 때다.



▶**운세** 계획한 일이 불경기라고 낙심하지 말라. 참용성이 필요하고,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2, 5, 9월생은 앉아서 성취하려고 하면 이룰 수 없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득이 커진다. 7, 8, 9월생은 갈색이 길.



▶**운세** 직장인은 찬사를 받게다. 연예인은 명성을 떨친다. 행운의 날이다. 자기 관리에 힘쓰는 것이 발전의 길임을 알라. 그, ㄸ, ㅂ 성씨는 내 행동이 분명하면 행운이 따른다. 1, 2, 3 월생은 검은색이 흉.